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SEP 21 1981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14 1981년9월9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September 9, 1981

「바시티배」 야구서 용호상박
연합교회 설욕
한인교회에 15 : 13우승

제1회 「바시티배」쟁탈 야구대회 결승에서 숙적 연합교회와 한인교회가 또 대결, 치열한 접전끝에 연합교회팀이 15 : 13으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지난 7월 한인회주최 대회에서의 패배를 설욕했다. 6일밤 센테니알·팍 중앙구장에서 벌어진 결승전에서 연합교회는 4회초 한인교회 천경호 투수의 상황판단 에러를 계기로 대량 7점을 올려 대세를 역전시켰다. 이날 한인팀은 우수투수상을 받은 천군의 호투로 2회까지 연합 타봉을 잘 막는 한편 공격에서 1회에 2점을 따내 게임을 리드했으나 3회와 4회에 각각 4, 7점을 내주어 이미 결판이 난 것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난 한인회대회 우승팀 한인교회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실력을 발휘, 3~6회에 3, 2, 2, 3 점을 얻어 6회까지 12 : 12동점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했다. 7회초 마지막 공격에 나선 연합은 안타와 훠볼로 투아웃에 만루 찬스를 맞았다. 이때 나온 3번타자 케니·박, 캐나다군 복무중 외출로 나온 박군은 써드를 강습, 라이나성 타구를 날렸다. 이 볼은 한인 3루수 스펜스 선수가 갈을 까는 바람에 2루타가 돼 2점의 결승점을 올렸다.

◇결승타를 날린 케니·박

그후 양팀은 1점씩 주고받아 15 : 13으로 연합팀이 대망의「바시티배」를 차지했다.

7월 한인회대회 에서는 한인교회팀이 20 : 5로 연합팀을 대파했었다.

지난5·6양일간 12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동 대회에는 5일 하오 8개팀이 준준결승에 올라 화랑, 청솔, 한인교회, 연합교회의 4개팀이 준결승에 진출했다.

6일하오 3시 속개된 준결승전에서 청소년으로구성된 연합팀은 청솔회를 11 : 6으로 가볍게 누르고 결승에 선착했다.

역시 청소년팀인 한인교회도 화랑을 13 : 7로 물리쳤다.

대회 주최자인 바시티운동구점의 이건영씨는 이대회를 자신의 평생 사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토론토 에서는 각종 스포츠대회가 열리지만 대부분 단체가 주최해왔다.

경기전적과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결승
연합교회 11 : 6 청솔회
한인교회 13 : 7 화랑
◆결승전
연합교회 15 : 13 한인교회

◇우수선수상 박토니

◇투수상 천경호

◇타격상 김병환

◇리더상 한석주

최우수선수상 : 박토니(연합)
우수 투수상 : 천경호(한인)
타격상 : 김병환(화랑)
미기상 : 김용준(청솔)
팀 리더상 : 한석주(U·T)

◇2회말 한인교회팀의 2번 정태주 선수는 3루 도주에 성공, 연합교회의 더블·플레이를 무색케했으나 홈·인하는 순간 다시 더블·플레이에 걸려 아깝게 죽었다.

社說
교포실업인 배척운동
미국 사건은 타산지석 아니다

본보 3일자및 4일 자는 흑인거주지역속에서 장사하는 교포상인들이 이들로부터 배척운동을 당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 분석하고 대책을 암시했다

뉴욕지사발 보도에 의하면 흑인들이 격분한 것은 ①한인들은 흑인지역에서 돈만 벌어가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지 않는다 ②흑인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다 ③흑인을 멸시 차별한다는 것등이며, 뉴욕의 흑인가 할렘에서는 10여일간 조직적 데모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 흑인단체는 흑인이 끄는 인력거에 동양인이 거드름을 피고 앉아있는 포스터를 거리에 붙여 흑인들을 선동자극했다 수삼년전부터 볼티모어 필라델피아등지에서 서서히 일어던 양민족간의 마찰이 불매운동을 거쳐 데모로 발전하자 한인사업가들은 뒤늦게나마 반성 흑인지도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상 현상은 비단 미국에만 국한된 사건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려하는 것이다

많은 교포가 버라이어티·스토어 맥스나 벡커밀크등 코너·스토어를 경영하는 실정이므로 일부 미국교포실업인들이 당하는 고충을 타산지석으로만 보지말고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할 것이다

타민족 거리에 뛰어들어 악착같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떳떳하고 자랑스런 일이나 "미땅나게 번 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없다"는 옹졸한 소견으로 지역사회의 공익사업등에 협조를 도외시하는 태도는 "코리언 고 홈"이란 배척운동으로 번지는 것이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지역사회 발전 외면은 수전노 근성에서만 나온것이 아니라 인종차별 사고에서 연유된 점도 있을 것이다

즉 백인은 무조건 우월시하고 흑인을 깔보는 태도가 은연중 우리 마음속에 잠재해 있어 흑인이라면 무조건 의심 기피하는 경향을 조장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우리가 백인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받는것이 억울하고 분한 것과 같이 흑인들은 우리들로부터 차별을 당할때 마찬가지 심정을 느낄 것이다

사업인은 백인이건 흑인이건 고객은 고객으로 친절히 대우하고 주변을 깨끗이해서 모범이 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 협조한다면 그들은 한국상인들로부터 「수탈당한다」 또는 「인종차별을 받는다」는 감정을 갖지 않을 것이다 비교적 흑인이 적은 캐나다에서 사는 우리는 주변이 백인사회이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

강인한 생활력과 불굴의 투지로 생활기반을 닦은 우리 교포들은 두가지 문제를 당면한다 그 하나는 생활과 시간에 여유가 생긴 뒤 다음 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고삐 풀린 말" 처럼 허탈감을 맛보고 방향을 상실한 점 따라서 부부간 권태증 심지어는 이혼 사례도 없지 않다 이것은 부부가 초긴장하여 손잡고 기업전선에서 뛸 때는 그런 마음의 겨를도 없었으나 일단 한 밑천 두둑이 잡고 한숨 돌릴 무렵의 안도와 자부심의 틈서리를 뚫고 그같은 부부간의 균열도 생기기 쉬운 것임을 지적하겠다

두번째 요인으로 이나라 사회에 대한 이바지와 사회적 진출문제이다

생활여유가 생겼으면 이나라 사회에 혜택을 입은 만큼은 우리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교육시설·의료시설·문화사업·불우시민 돕기등에 즐겨 희사하며 몸소 행동으로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회를 대상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일부는 사회를 위해 되돌려주는 성의와 아량을 가져야 비로소 시민다운 시민이요 어엿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들 저마다는 「내가 이 사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이 나라에 진출하고 이바지할 것인가?」를 먼저 곰곰 생각하고 자기로서 가능한 최선의 지향(志向)과 노력을 기울임에 인색치 말아야 할 것이다

헤드폰등 「랩」시설 갖춰
전인성씨 피아노학교 개설

피아노·랩(훈련실)을 통해 초보생및 기성피아니스트를 가르치는 피아노학교가 토론토에서 문을열어 10일 교육을 시작한다.

109 Dupont St의「피아노·아카데미」는 단순한 기술지도에 그치지않고, 창조성을 길러주는 음악교실로제임스·트위디, 전인성씨의부부가 경영한다.

이들은 기성 피아니스트로 정평이 있다.

피아노·아카데미는 6대의 전자피아노를 포함 도합 10대의 피아노를「피아노·랩」에 설치, 교사와 학생이 헤드폰을 끼고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개인지도하고, 그룹지도도 하는 효과적 음악교육 시스템을갖추고 있다. 즉 학생들이각각 헤드폰을끼고 피아노를 연주하면 교사는 헤드폰과 마이크를 써서 그 피아노 소리를 듣고 마이크를통해 각자에게 개별비평도 하고 주의점을 설명하기도 한다. 학생이치는 피아노는 스위치 하나로 주위의 참관자들도 들을수 있게 되어있다.

이 시설은 그들 부처가 피아노를 공부하던 필라델피아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토론토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시스템이다

전씨는 토론토에서 엘시·베넷의 지도로 피아노를 배우고 몬트리얼의 에콜·빈센트·딘디에서 이본느·후버트에게 뉴욕의 줄리아드음악학교에서는 사스차·고르디뎃키에 사사한 후 캐나다 음악도의 최고영예인 연방정부예술원의 장학금을 2년간 받아 필라델피아의 템플대학(아멜·마커스에 사사)을 나왔다

음악석사인 그녀의 연주경력으로는 매시홀 세인트·로렌스·홀(토론토) 살·크로드·상빠뉴 (몬트리얼) 카네기·리사이탈·홀(뉴욕)등에서 리싸이틀을 가졌으며 CBC방송에도 자주 연주출연했다

로유라·카레지 (몬트리얼)와 템플대학에서는 피아노를 가르쳤다

현재는 유명한 클락슨홀 사립학교(셔본X엘름·스트릿)와 크로드·왓슨 특기자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남편 제임스·트위디 씨는 던디에서 음악석사 획득 템플대학에서 피아노연주및 음악형태학을 장학생으로 전공했으며 나탈리 페핀 이본느·후버트 하비·웨딘에게 각각 사사했다

템플대학에서 미츠벅·심포니·오케스트라의 앵블러·페스티발·프로그램작성 동대학원에서 음악사강의를 맡기도 했다

트위디씨는 CPT의 피아노 관계회원 CBC방송(몬트리얼및 동부캐나다) 연주 필라델피아서 독주회 모짜르트·온·더·스퀘어·페스티발에서 독주하는등 활약이 많았다

이들 부부가 피아노·아카데미에서 제자들을 지도할 주안점은 두가지로 집약된다

① 먼저 "듣는 것(청음)훈련"—악보 읽을 줄 아는 일에 앞서 음악을 듣는 귀(청각)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

② 음악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고 창작적 감각(창조력)을 길러준다

이 피아노학교는 해마다 한번씩 어린이들의 피아노·콘서트를 열 예정이며 그때 안면있는 미국의 저명 음악가를 초청 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첫 학기는 10일~12월21일(14주간)이다. 초보자는 전여사가 맡으며 기성피아니스트들을 위한 실기·이론·역사등은 부부가 분담 지도한다

◇피아노·아카데미 경영·지도를 맡는 전인성(좌), 트위디씨 부부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헌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헌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536-1692
R.245-3539

생명보험

(HENRY)KANG
Canada Life
12년간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 재 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1981년 LUXURY
CONVERSION VAN
TOWNE TRAVELLER
(FULLY LOADED)
SALE PRICE : $20,183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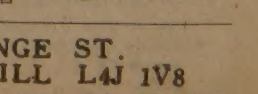
한인볼링리그
본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인볼링리그를 개최합니다
일 시 : 1981년9월13일(일) 오후5시30분부터 —1982년5월 중순까지
장 소 : PLAY TIME(더프린×로렌스)
※참가신청은 당일현장에서 접수하며, 초보자, 부부들 특히 환영. (매주 일요일 6시 부터 리그시작)
연락처 : 742-2193(MR. 정)
622-0224(MR. 오)
759-8228(MR. 정)

주최 : 한인볼링협회

HELEN'S
BEAUTY SALON

Mrs. 리
377 Albion Rd. Rexdale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2블럭 동쪽)
☎ : 741-7829 (B), 742-8731 (R)

NORTH YORK
GM
CHEVROLET
OLDSMOBILE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김 병 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 (B) 881-5000, (R) 496-0954

East AsianLibrary
Rm.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연방·알버타 오일 협정체결
오일값 5년후엔 2배 올라

휘발유 가격이 현재의 리터당 38.9¢(레귤러)에서 5년후인 86년에는 88¢ 가 된다.

주택 난방오일비는 현재의 주택당 연평균 896달러에서 2천달러로 오른다.

이것은 지난 2일 연방정부와 알버타 주정부가 에너지 가격과 수입분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1년반만에 타결된 역사적인 협약에 의하면 알버타 생산 원유가격은 현재의 배럴당 18.75 달러에서 86년에는 77달러까지 오르며, 86년도까지 알버타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은 연방정부, 알버타및 석유회사가 각각 540억, 640억, 940억달러씩 분배한다

이번 협약으로 연방정부는 현재 알버타 생산 석유수입의 25%를 받게되어 현재의 10%에서 무려 15%나 상승된 반면, 알버타는 45%에서 15%가 감소된 30%의 수입을 분배 받는다. 석유회사는 현재와 같은 45% 선을 유지한다

알버타주의 석유 수익분배 비율 감소는 알버타주에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유가격의 높은 인상폭 때문에 연방정부가 추진하려던 「국가에너지 계획(N.E.P)」아래에서 얻는 수익보다 80억달러나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다

한편 연방정부는 외국산원유 수입에 대한 보조금지불을 중단하게 되어 재정적자 폭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퀘벡주등 비산유주들을 위해 외국산 수입원유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국제가격의 절반에 불과한 국내 생산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해왔다

오일가격의 인상은 다른 물가를 자극시켜 식품비, 비행기요금인상등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부채질, 소비자 부담을 늘렸으나 오일 자급자족 목표에 한발 다가서게하고 캐나다 오일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등 경제적 신임도가 높아감에 따라 캐나다 달러가치가 올라가고, 이에따라 이자율의 인하를 초래할 전망이 크다. 실제로 캐나다 달러는 2일 그 전날보다 ½센트가 오른 83.58센트(U.S.)의 강세를 보였다

이번 석유가격인상은 또한 투자와 고용을 증대시켜 침체된 캐나다경제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경제학부 주임교수 데이빗·래이들러(David Laidler) 교수는 전망했다

시드니 잉거만(Sidney Ingerman)맥길대학 경제학자는 "이번조처는 물가상승만 초래할 뿐 우리가 당면한 기본문제는 하나도 해결해주지 못했다"고 상반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다국적석유 회사들만이 이번 협상으로 전보다 더 큰 이득을 얻게되었다"고 말했다

◇트루도 연방정부수상(오른쪽)과 로히드 알버타 주수상(왼쪽)이 에너지 협약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가에너지 계획**(National Energy Program)

80년10월 연방정부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계획으로 국제가격의 ½선인 알버타 산 원유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고 연방정부의 석유수익분배 몫을 늘려 비 산유주의 외국산원유 수입 보조와 캐나다계 석유회사의 탐사활동에 보조비를 지출, 궁극적으로 캐나다 석유회사의 국유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연방정부세입을 늘리는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

- ●알버타는 연방정부에 대한 보복적 원유생산감소를 철회한다.
- ●새로 개발된 석유와 타샌드(석유모래) 석유는 국제표준가격을 적용한다.
- ●원유가격은 현재 배럴당 18.75달러에서 86년까지 57.75달러로 올린다. 단, 국제표준가격의 75%를 넘지못한다.
- ●가솔린 가격과 난방오일 가격은 향후5년간 리터당 30센트정도 오른다(세금제외).
- ●오타와 정부는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알버타주 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양보임).

한·가합동 추석놀이 윷놀이로 친선도모

스카보로공립도서관 주최, 제2회 한·가 합동 추석놀이가 오는 19일(토)하오1시30분~4시 씨다브레 도서관(545 Markham Rd. 로렌스 E 1블럭 남쪽)에서 열린다

유형승(토론토시립 중앙도서관 분류과장)씨의 주선으로 작년부터 연례행사로 실시되는 이 추석놀이는 토론토 한인YMCA 및 한인와이즈멘즈 베타클럽 후원으로 한국 고전문화를 통한 한·가친선 모임이다 금년 제2회 추석놀이는 한국문화영화 상영, 한인Y어린이 무용단(지도 김정숙) 공연, 다과및 떡의 잔치및 윷놀이 대항전의 순서로 진행된다

윷놀이는 백인과 한인의 한 조를 이루어 윷판을 벌이기 때문에 한·가친선에 큰 도움을 준다

우승팀에는 한국총영사배가 수여된다(3닌연승제) 참가비 무료

◇작년도 민속춤 광경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⑤⑤

팔리·모왓 원작, 현재훈 옮김

그리고 이땅에 찾아온 이방인인 한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언어였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누이ㅌ의 단어를 익히고, 오호ㅌ와 오텍에 의해서 그들 단어의 미묘한 소리까지 모두 ㅌ달할 수 있을 때까지 지치는 줄 모르게 맹연습을 당했다. 나는 상당히 추상적인 문제로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이들 원주민들은 추상적인 단어를 생각도 못하고 ㅍ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장이 거짓말이라고주장하겠다. 그 사실이 판명되는 날까지 나의 이 과감한 주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할것이다. 내가 이할미우ㅌ 사람이 된 일년후 쯤 처칠부근에 살고있는 해변가의 에스키모와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예사롭게 또 완전한 자신을 갖고 나는 주위에 있던 몇사람의 백인들에게 보라는듯이 그에게 한바탕 이야기를 걸었다. 그랬더니 그에스키모의 얼굴이 멍청하게 질려가지고 도대체 그는 내가 무슨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겠다는 ㅍ정이었다 그말이 꼭 이상해서가 아니라(많은 이할미우ㅌ의 말은 해안선에 사는 사람에게 ㅌ하지가 않음) 그렇게 확신하고 구사했던 문장과 어법은 그에게는 단지 중얼거리는 소리같았기 때문이다

이사건은 하나의 ㅅ픈환멸이었지만 이할미우ㅌ의 성격을 나타내는 밝은 빛이기도 했다. 나는 세상에 누가 살아가는 도중 잠시 동안의 편리를 위해서 다른말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들의 언어의 ㅌ별한 전문용어에서 더 정확한 지식을 얻도록 유도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사람들의 진짜말을 한번도 해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나는 이할미우ㅌ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전설을 또는 그들의 역사를 알게 되었으며, 이들 모두를 진실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확실히 믿는다. 그것은 이할미우ㅌ가 준 선물이었고그들이 나에게 줄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사람들이 베푼 동정심 이외는 어떤 심요도 받지않고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화의 문제가 풀리기시작한 후에 내가 처음으로 오텍에게 던진 질문중의하나는이할미우트가 살 수있는 조건이 거의 똑같은무제한의 광활한 평원에서어째서 꼭 리틀힐스 근방에서만 몰려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이 의문은 내가 처음으로 리틀힐스를 찾아갔을 때부터내 마음속에 일어났다. 왜나하면 캠프를친 자리가 장차 이 사람들의 과거를 탐색해 내려는 시도에 처음으로 착수할수 있는 역사적인 중요성을 갖고있지않을까 하는 의심이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텍이 리틀힐스의 캠프에 대하여이야기를 시작하자 이누이트 사람들의 간단한 생활방법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과 결과에 숨겨져있는 복잡성을 처음으로 알것만 같았다. 이것은 나에게 교훈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소위말하는 단순한 문화속에서 단순함을 찾아내려는 잘못된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 만일 내가 이할미우트를 정말로 이해하려면 어느 문명된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서로 연관된 요소들의 복잡성을 해결하려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겠다는것을 배웠던것이다.

우선 오텍은 영구적으로 캠프를 세울곳을 선정하려면 크게 세가지의 중요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나에게 알아듣게 설명했다.

첫째로, 사슴이 우리의생명을 동의할 것인가? 혹은 직접적인 말로 이장소가인간의 생명에 필요한 고기를 제공해줄 것인가? 이미 사슴에 대하여 기술한것을 읽고 독자들이 생각할때이 조건은 쉬운 대답은 아니다.

둘째, 그곳이 연료의 공급을 할수 있는지 하는 문제 이다.

동물들이 음식과 난방을 하는데 충분한 연료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이 북극지역에서는 캠프는 바렌의 난쟁이나무가 많이 자라는 지역내에 세워져야 한다.

(계속)

旅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 COULDN'T GET THROUGH.

미국인 친구에게 퇴근하기전까지 사업상 중요한 결과를 전화로 알려주기로 했는데 아무리 다이얼을 돌려도 busy signal(통화중신호)만들렸다. 연락을 못해 다음날 화가 잔뜩난 상대방이 Why didn't you call me yesterday?「왜 어제 연락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물어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못했다」를 I called you, but I was not able to talk to you. 라고 대답하였다.

물론 문법적으로 보아서 틀린 곳이 없는 훌륭한 문장이지만 이런경우 미국인들은 간단히 I couldn't get through. 라고 말한다. through는 전화를 통하다의 뜻을 지니고있으니 「당신과 연결이 안되었다」「통화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당신에게 연락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못했다」라고한다면 I tried to get hold of you, but I couldn't get through. 라고 하면된다.

A: Why didn't you call me yesterday?
B: I tried to get hold of you, but I couldn't get through.
A: What time did you call?
B: I tried all morning.
A: Then I can't understand why you couldn't get through.
B: I kept getting a busy signal.
A: 왜 어제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읍니까?
B: 연락하려고 전화를드렸는데 통화를 못했읍니다.
A: 몇시에 전화 하셨지요?
B: 오전 내내 걸어 보았읍니다.
A: 그렇다면 왜 통화를 못하셨는지 모르겠군요.
B: 계속 통화중 신호만 들렸으니까요.

※get hold of: ~와 연락하다, ~을 잡다. get through to: ~편지, 전화가 통하다.

발음 couldn't: 「쿠든트」가 아니고 혀를 입천장에 붙인채 「은」소리를내되 소리가 코로 터져 나오도록 「쿳-은」같이 발음한다.

<한국일보 시카고支社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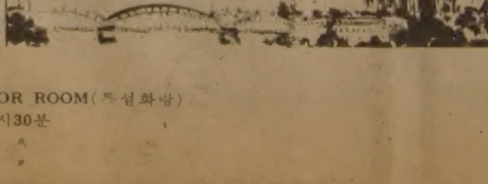
현대한국작가초대전
(양로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전시회)

이양원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신인 예술상 수석상 수상
—국전 특선5회
—국전 문공부 장관상
—국전 입선8회
—각종 초대전 출품및 개인전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일연회 회원

유종민
—서울미대 조각과 졸업
—서울대 교육대학원 졸업
—각종 초대전 출품
—국전6회 입선
—제3회 개인전 가짐
—각종 미전 심사위원
—현 관동대학 미술교육과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INSEA한국회원

조용각
—서울 미대회화과 졸업(서양화)
—신인 예술 장려상 수상
—각종 국제대회 초대전 출품전및 개인전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추계예술 조교수
제3구룹회원

권승연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1회특선)
—창작미협전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제3구룹전
—한국현대 도자기 삼인전



한풍렬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서울미대 대학원 졸업
—대학교 강사
—관인 모뉴망 미술학원장
—경기도전 수석상 수상
—국전특선1회 입선6회
—각종 미전출품및 개인전2회
—중앙미술 내상전 장려상 수상
—현 한국미협회원, 일연회 회원

장연탁
—서울미대, 온타리오 미대졸업
—국전출품
—낙우회 회원전 출품
—이태리 마리노(로마)국제 비엔나레 출품
—이태리 카라라 국제조각 심포지움 참가
—이태리와 카나다에서 4번 개인전
—현 캐나다 조각협회 회원
●장씨 작품이 영구소장된 화랑
이태리 미라노 현대미술관
베니스 누오브 스파지오 화랑
토론토 가보 화랑
캐나다 조각협회

나영심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
—한국대상전 출품
—제1회 한·일 작품 교류전 출품
—미술회관 초대전 출품
—창작미술 협회전 출품
—한국미협전

장 소: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특설화랑)
시 간: 10월 8일(목) 9일(금): 오후6시~9시30분
〃 10일(토) 11일(일): 〃 8시~ 〃
〃 12일(월) 13일(화): 〃 6시~ 〃

38개問題企業선정 支援
3千億원 貸出金상환 3년유예

「重化學구제」、主要산업확대
非業務用 不動產處分등 誠實전제 利子징수도 연기키로
金融團、銀行監督院에 제출…곧施行

감독원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와 업체별 지원규모를 심사해서 관계당국과 협의를 끝내는대로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 은행별로 시행토록할 방침이다.

금융단은 중화학을 비롯한 주요산업부문의 기업중에서 ①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수년내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하고 ②국가적 견지에서 갱생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8개 問題企業을 선정, 이들에게 도합 3천70여억원 규모의 대출금상환유예및 이자징수유예조치를 3년간 시한부로 해주기로하고 업체명단과 업체별지원 (원금상환및 이자징수유예) 규모를 결정, 4일 은행감독원에 제출했다.

大型프로젝트 協力
抗日의 原動力가능
소노다, 또對韓忘言

【東京4日=聯】 소노다(園田直) 일본외상은 3일 참의원안보특별위에서 對韓경제협력과 관련『대형프로젝트…』

日首相 한국經濟발전協力
"韓半島안정、東亞평화에 重要"
"南北수뇌회담등 對話기대"

◇스즈끼日首相

【東京4日=宋年彬특파원】 스즈끼일본수상은 4일 하오 美日관계 민간회의(下田會議)에서『한국의방위노력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의 세력균형에 크게 기여하고있음을 높이평가한다』고 말하여 한국의 안보방파제론에 이해를 표시했다.

北韓集團불장난 豫測不許
"對話노력·힘優位 확보해야"
全대통령、3士官졸업식 諭示

常習浸水동네 移轉
全대통령 지시 全破가옥 近代式복구

"都市계획은 百年大計로"
大邱直轄市廳 순시

【大邱=尹國炳기자】 全斗煥대통령은 4일상오 大邱直轄市를 순시, 鄭琮鎬시장으로부터 市政現況을 보고받았다.

家屋全破 4백32만원
水災복구支援 半破엔 1백80만원
各種세금·學校公納金감면도

死亡·失踪 87명
태풍被害 財産194억원
災民 6천8백57명

容積率、地下層제외 閣議의결

民正·民韓、水害수습 對策
위문단파견도 現地에

水災民에 따뜻한 同胞愛를

금번 남부지방을 휩쓴 태풍 애그니스호는 수많은 동포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으며 결실을 눈앞에둔 농작물에 큰피해를 주어 농민들의 가슴을 처절하게 멍들여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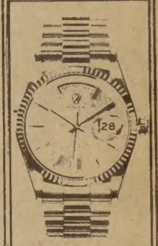
來 30일까지 本社서 접수

한국신문협회
한국일보社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7
은 : 온스당 US 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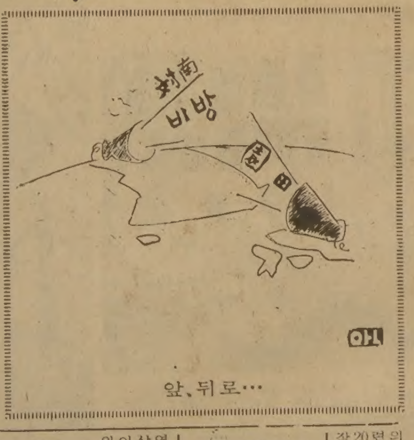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社會漫評



앞、뒤로…

地平線

한국일보
구독은
533
2361

주식회사
이훈모부동산

정직
성실

221-2084, 225-1204
(4975 YONGE ST.
AT SHEPPARD ST.)

HUN MO LEE
REAL ESTATE LTD.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구 HIT도매상)
"소문없이 싸게파는 도매상"

Special Sale ; Sept. 8 - Sept. 19

Pamper Toodler		53.00	51.79
Day time (EX)		42.50	40.50
Delsey	24/4's	38.30	32.95
White Swan	24/4'S	35.10	32.70
Royal Paper Towel	18/2S	27.55	22.70
Hi-Dry Towel	18/2'S	20.00	18.50
Scott Towel	18/2'S	26.65	22.80
Wet Ones	12/70'S	21.80	18.00
Chips Ahoy	12/150'G	18.35	17.50
Fruit Tella Candy	36'S	5.95	4.99
Mento's Candy	24'S	4.35	3.49
Scope	12/175m	13.75	12.60
Crest (mint)	100ml	34.00	27.89
Hershey Choco Syrup	12/10oz	8.95	9.40

한인연합상사
251-6578
U. K. 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ONTO M8Z 5H8

공고

금번 세종한글학교는 오는 9월12일부터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뉴스래터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상기 학교에 연락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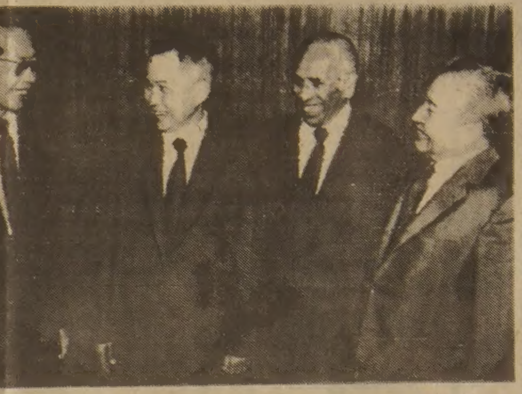
연락처 :
579-9899
576-7021(김 덕 수)

세종한글학교
교장 김덕수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教皇저격 KGB관련"

英TV폭로 伊수사기관서 협의잡아



◇싱가포르서 會同한 反越지도자들 3일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會同한 캄보디아의 3개저항세력지도자들。(왼쪽에서부터) 前수상 손산, 前 대통령 키우·삼판, 신아탐비·라자라트남 싱가포르외상, 前국가주석노로돔·시아누크公。【싱가포르 3日AP聯合】

波자유勞組 비호이유
美、통고받고事態분석
"狙擊犯 아그자는 정신병자아닌 국제테러 行動대원"

【런던4日AP=聯合】바티칸 교황청과이탈리아보안기관은 모두 소련비밀경찰 KGB가 지난 5월 요한·바오로2세 교황저격사건에 관련된 혐의를 잡고있다고 런던의 테임즈TV가 3일 보도했다。이TV방송은 교황의 저격동기가 폴란드출신인 교황이 조국의공산정권에저항하는독립자유노조를 비호한 때문이라고 밝혔다。이같은 TV폭로가 있자 가디언紙도 4일 바티칸교황청은 미국에 소련의 혐의사실을통고했으며 워싱턴당국은 CIA(미중앙정보국)및 국가안보회의 공동으로 바티칸측의 고발내용을검토、분석했다고전했다。

이 폭로방송프로는 또한 교황저격범인 터키출신 알리·아그자가 범행당시 다른 총잡이를 동반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프로 제작자인 쥴리안·맨들기사는 이같은 사실은 이탈리아정부와 교황청이 인정하고있다면서 범인 아그자는 외로운 정신병자가 아니라 동구권국가들속에 뿌리박고 있는 국제적음모의 행동분자라고 주장했다。

교황피격당시 이탈리아보안책임자였던 프란시스코·마쥴라씨는 이프로에 출연、교황이 폴란드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를 바티칸에 초청하고 여러차례 자유노조지지열망을 표시했기때문에 교황암살동기는 공산권에서 나올수밖에 없었다고 소신을 표명했다。

또한 한 바티칸당국자와 4차례 장시간접견을 가진바 있는 이탈리아언론인 프란시스코·안드레아씨도 이프로를 통해 바티칸당국은 교황암살음모의 전모를 알고있으며 교황이 폴란드인이기 때문에 이사건음모가 동구권에서 꾸며졌다고 인정하고있다고 전했다。

안드레아씨는 5·13 교황저격사건은 교황이 폴란드가톨릭 최고지도자 비신스키 추기경의 장례식집전을 위해 폴란드를 다시 방문하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고 교황의 폴란드방문은 결국 반공데모를 유발할것이었기 때문에 사전 계획된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테임즈TV프로는 알리·아그자가 동구공산권에서 총기밀수입센터로 널리 알려져있는 불가리아에서 작년에 수개월 체류했으며 그는 불가리아정부를위해 터키에 무기를 반출하는 한 밀수상회사에 소속돼있었다고 보도했다。

美망명KGB要員 CIA서2重간첩

【워싱턴3日UPI=聯合】지난64년 미국에 망명、연봉 5만달러로 美중앙정보국(CIA)의 상담역을맡아온 소련비밀경찰(KGB)전 정보요원이 아직까지도 소련을위해일하고 있는 2중간첩인것으로 밝혀졌다고 리더스·다이제스트誌 10월호가 전했다。

캄보디아民主聯政구성委 설립등
4개항 共同聲明 채택

反越3者회담

【싱가포르4日AP=聯合】반베트남연합전선 결성을위해 싱가포르에 모인 노로돔·시아누크公을 비롯한 캄보디아저항세력 3당사자들은 4일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군의 전면철수를 관철시키기 위한 4개항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시아누크공과 우익게릴라 지도자인 손·산 크메르루지 게릴라군을 이끌고있는 키우·삼판등 세지도자는 이날 3인의 이름으로 발표된 합의성명을 통해 반베트남세력간의 상호충돌을 일체 회피하기로 합의했다。

4개항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베트남침략자들을 캄보디아로부터 축출하기위해 민주캄보디아 연합정부 구성을 희망한다。

②상기연합정부의 구체적 구성을 위해 임시위원회를설립한다。

③캄보디아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의 결정과 유엔의모든 결의를 전폭 지지한다。

④전세계 평화애호국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反越3者회담」대책論議
越 레·두안 急據 訪蘇

【모스크바3日聯合】베트남 공산당서기장 레·두안은 베트남의 對 캄보디아 군사개입에대한 舊 캄보디아 정부지도자들의 反 베트남연합전선결성협상에 따른 대책을 소련지도자들과 협의하기 위해 3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부수상 투·후를 대동하고 이날 모스크바의 비누코보공항에 도착한 레·두안은 소련공산당의 실력자인 정치국원 콘스탄틴·체르넨코의 영접을 받았다고 소련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볼리비아大統領에 빌리陸參總長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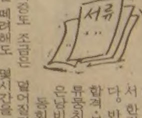
【라파스4日聯合】볼리비아 육군참모총장인 셀소·토렐리오·빌라잘군이 공석중인 대통령직에 지명되었다고 4일 군사평의회가 공식발표했다。

빌라잘군의 대통령지명은 볼리비아 육·해·공군참모들이 36시간 협의한 끝에 이뤄졌다。

지난달 가르시아·메사대통령이 쿠데타로 물러난후 군사평의회가 권력을 장악해왔다。

메아리

書類 간소화



간소화바람은 관청이나 정부산하기업의 서류도 가볍게 해주고 있다。얼핏 떠오르는것이 여권수속의 간편화다。지난달부터 실시된 해외여행자유화와 함께 여권발급을 위한 갖가지 서류나 증명의 분량이 크게 줄었다。

70년대초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隔世之感이다。당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누구나 외국의 손쉬운 수속절차를 부러워 했다。거주지관청에 사진을 우송하고 전화로 간단한 인적사항을 알리면 여권은 집에까지 배달된다。

그때 우리 형편은 어떠 했는가。우선 20∼30일이나 걸림 신원조회를 받기위해 갖출 서류만도 다섯가지가 되었다。도장과 무인을 곳곳에 찍고 그러고도 구비증명이 10여가지 더 첨부되어야 여권이 손에 쥐어졌다。호적등본、주민등록증、인감증명、국세증명、이력서、관계부처추천서、재직증명서、재정보증서、병적확인서등—。한달 넘게 이런 서류를 만들다보면 비행기에 오를땐 발진상태에 빠졌다。

이제 이런 고역은 한결 덜어졌다。신원조회는 1주일내에 가능하게 되었다。여권만이 아니다。우리 생활주변엔 아직도 서류홍수가 넘친다。집을 한채 사고 팔거나 취직을 하려해도 두터운「서류의 터널」을 거쳐야 한다。

물론 각종 서류는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제출되는것이다。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복되고 형식에 치우친듯한 것이 많다。서류가 많다는것은 결국「不信」탓이라고 밖에 할수 없다。가짜와 위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류의 담장」을 치는것이다。

앞으로 정부산하 투자기업체의 입사시험과 면허·자격·검정시험땐 응시원서 한장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반가운 간소화 바람이다。합격·불합격 이전에 두툼한 서류뭉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것은 낭비라고 밖에 할수없다。

동회나 구청의 번거로운 과정도 조금은 덜어질것 같다。주민등록증 한장을 떼려해도 몇시간을 기다리는 피로는 어떻게든 줄어져야 한다。

이번 당국의 방침은 다른 민원관계에도 크게 확산되기를 바란다。관청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가급적 서류를 줄이는 개선책을 펴나가야 할것이다。「書類苦」를 덜어주는것은 신용사회확립의 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든다。「작은것이 아름답다」는 말처럼 간소한것이 오히려 믿음직스럽기 때문이다。

"美의 日방위비 增額압력 貿易逆調 시정위한 처사"
未來학자 앨빈·토플러 주장

【東京3日AP=聯合】「제3의 파도」「미래의 충격」등으로 전세계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토플러는 2일 방위비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對日압력은『지나치게 근시안적』일뿐 아니라 전략적 이유보다는 경제적 이유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美國의 對日방위비증액압력이 양국간의 무역역조시정의 수단으로 일본이 미국의 고성능무기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일본외신기자클럽에서 회견을 가진 토플러는 현재 소련이 미국이나 일본에 전략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것으로는 믿지않는다고 말하고『미·蘇관계가 정상화되면 나의 견해도 바뀌어질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일본인이라면 현재 일본정부의 태도와 똑같이『말로는 떠들썩하지만 실제로는 아무일도 하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의 방위비증액요구에 응함으로써 야기될 결과를 우려한다면서『특정국가에 무기구매를 권장한다는것은 마찰을 줄이는 방법치고 치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플러는 현재의 美행정부가 새로운 전자시대에서 나타날 경제변화에 대해 비전을 가진 인물이 부족하며 특히 레이건행정부는『모든 문제들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하는 맹목적인믿음』이 팽배해있다고 진단했다。

이데올로기는 빵을 주지않는다

베트남 赤化6년… 西獨슈피겔誌가 公開한 참혹한 現場

「地上樂園」아닌 「굶주림의 땅」으로

◇하노이의 무작정 上京시민 농촌지역으로 강제이주했던 하노이 시민들이 황무지에서 정착에실패, 자포자기상태로 무작정 상경했다。

反越전선을 모색하는 캄보디아3者회담이 참관과 아세안의 지원하에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을때 베트남의 레·두안黨서기장이 돌연 모스크바로 달려갔다。바깥에서의 군지에 겹쳐 베트남 내부에서는 굶주림으로인해 베트남공산주의의 神話가 무너져갔다。

『우리는 먹는 것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고싶은 것이 없다』서독 슈피겔誌의 티치아노·테라니記者는 공산베트남의 실상을 파보되 함께 생생히전한다。

1975년 미국을 패배시켰을 때만해도 베트남공산주의는 『1백년 숙원이던 민족주의 승리를 안겨다 준 거대한 존재』로 내부에서 인식되기도했다。그같은 공산주의의 위대한 능력은 틀림없이 베트남을 지상낙원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베트남 사람들은 믿었는지 모른다。

그후 6년。공산주의가 베트남땅에 만들어 놓은것이라곤 굶주림의 비참한 현실이니。

『우리는 굶어죽어가고 있다。그러나 육신이 [illegible] 조차도없다。』『차라리 B52機가 우리 땅을 폭격할때가 좋았다。그때는 우리에게 꿈이있었다』하노이 시민들의 생각을 티치아노·테라니는 이렇게 인용하고있다。베트남의 경제는 파산상태다。

75년부터 年14%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던 베트남공산당의장담은 80년까지 2%성장을 해놓은데 불과하다。매년 2천1백만톤의 곡물을 생산、넉넉히 먹여 주겠다던 약속도 깨졌다。겨우 연간1천4백만톤의 생산에 그치고 있다。

경제는이러한데 그동안 인구는 매년3%씩 늘었다。베트남 근로자들의 월평균임금은 60~80동 (1달러=3동)인데 수프한접시는 7동、물고기 1kg은 25동、쌀은 돈을주어도 사기 어렵다。

지난 3월 다낭港부두하역노동자들이 『배가고파서 일을 못하겠다』고 소련배에실려온 화물하역을 거부한일도 있다。

그래서 감시의 눈을속여가면서 벌이는 태업、아메바식 스트라이크가 어느 작업장에서나 번져가고 있다는 보도다。

1백만大軍을 유지、캄보디아의 병탐을 피하던 공산베트남의 속은 이렇게 무너져가고있다。

【崔相鎬기자】

◇베트공의 외상이던 구엔·티·빈。하노이 정권은 미국과 협상중 그를 한껏이용하고 나서 공산통일후 따돌려버렸다。

◇사이공의 黃麻공장 원자재는 하노이에서 실어온다。

◇한산한 古都후에 행상을 단속하는 관헌。

◇하노이의 생존수단 자전거에 바람넣는 펌프가 이런사람들의 유일한 생활수단이다。

◇다낭의 독일병원 베트남에서는 그래도 그럴싸한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손꼽고 있으나 내부는 통나무 침대·의자뿐이다。

앙골라 레이다基地완파
南阿共軍서 戰鬪機동원

【요하네스버그·리스본3日AP=聯合】南아프리카공화국전투기들은 최근 南阿共軍의 앙골라침공기간중 나미비아접경 1백50km이내의 앙골라남부국경지대에 설치된 모든 앙골라레이다 기지와 對空미사일진지들을 완전파괴했다고 정통한 서방소식통들이 3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남아공군의 주요 공격목표는 쿠네네江북쪽 1백30km와 2백km에 각각 위치한 카하마와 치번바에 배치된 소제샘3地對空미사일과 레이다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南阿共병력1만·앙골라領內주둔

【루안다4日AP=聯合】약1만1천명 이상의 南阿共軍병력이 아직도 앙골라領內에 남아 쿠네네이남의 전지역을 사실상 점령하고있다고 앙골라국방성이 3일 밝혔다。

·앙골라국방성은 성명을통해 이같은 南阿共軍의 앙골라주둔은 앙골라에서 완전철군했다고 한 南阿共정부의성명이 오로지 『국제여론을 오도하기위한것』임을 입증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신임장위원회 南阿共대표권 拒否

【유엔本部3日聯合】나미비아(西南아프리카)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유엔특별총회가 4일상오(한국시간)개막되었으나 南阿共의 대표권문제에 관한 신임장위원회의 所見을 듣기위해 15분만에휴회했으며 신임장위원회는 南阿共의 대표권을 또다시 거부했다。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한 국 관

냉면·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 문
대소 200석 완비
OPEN :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TORONTO
536-0290

블 루 어 안 경

●Zeiss(Marwite) ●Rodenstock
●Christian Dior ●Nina Ricci
●Menrad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새벽2시 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각종 한약재 도매
보약조제및 상담

●우황청심환 ●우황 ●사향
●웅담 ●녹용 ●정주사 ●해구편

중국의사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公司 KINGS IMPORTS
428 DUNDAS ST. W. TOR.
☎ : (416) 977－9818

秋夕과 소비자

일하며 생각하며

해마다 여름이 한바탕 야단법석을 떨고 지나가면 곧이어 새로운 적이 나타났음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들리면서 다시 뒤숭숭한 날들이 시작된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 초비상태세를 갖추라는 예고이다.

오곡백과를 수확하게 될것이니 祖上을 숭배하고 茶禮를 잘 준비할 것이며, 아무리 바빠도 故鄕을 찾아 차례에는 一家친척들이 다 참석해야할 것이고, 겨울을 앞둔 명절이니 식구들 내복이라도 한점씩 추석빔으로 장만하라는등 괴로운 주문들이 주부의 머리를 꽉메운다. 매스컴까지 나서서 추석물가를 부추기기까지하니 병주고 약주는 격이다.

즐겁게 추석 행사를 치를수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마는 넉넉지못한 살림을 꾸리는 서민들은 마음까지도 독하지못해 이런 보이지않는요구를 외면하지 못한채 질질 끌려다닌다.

똑같은 나팔소리가 商人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암시가 되어 대목심리를 자극한다. 상반기 적자폭을 이 기회에 메울 계획을 세우고 추석경기를 한몫 보기위해 매점매석에서 시작,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서민의 주머니 먼지까지 털 채비를 한다.

李正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총무>

소비자는 단결력이 없고 반면에 企業은 組織體이기 때문에 항상 지는 편이 어느쪽인가는 우리들이 체험으로알고있다.

지난 4월1일부터 발효된 公正去來法은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물건값이 비싸든 싸든, 그 현상의 모든 책임이 국민들의 소비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며 무력한 개개의 소비자들이 막강한 기업에대처하도록 강요하면서 弱肉強食의 운동장에 국민을 던져놓은 격이다. 지혜로운 만큼 소비자가 이익을 얻을수도있는 法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法이 있는것 조차도 모르는 국민이 企業상대로 맞서게됐으니 비양심적인 많은 기업의 횡포가 큰 문제로 남게되는 것이다.

自助力이 요구되면서 첫번째 맞는 추석이므로 소비자들이 세력을 발휘하기란 쉽지않게 됐다.

대체로 物價얘기가 나오면 남성들은 여성들이 물가동향에 지나치게 예민한 점을 비난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것처럼 유유하다.

지금까지 몇번의 쇠고기파동을 예를들어보더라도 절약의 주역은 늘여성이었고 남성은 왜 그런절약을 해야하는지조차 알려고 하지않는다.

식탁에 올라가는 쇠고기양이 一週 통산해서 고작 1근 남짓한것이 우리네 식탁인데 남성들이 직장에서 外食으로 消費하는 쇠고기양은 비교안될만큼 많다.

쇠고기파동이 나니까 어느 관리가 『사실이지 우리가 쇠고기를 너무 많이먹지 않습니까』라고 한말에 아연했다. 과연 물가安定의 방해자는 누구인가. 여성들의 충동구매도 억제되어야 하겠지만 남성들의 무계획적인 구매행위는 더 조심해야될것이다.

현싯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소비생활태도를 고칠쪽은 오히려 남성들이다.

공정거래법이후의 경제는 기업대 소비자로볼때 똑똑한쪽이 이기는 싸움이된다. 소비자의 半쪽인 남성이 외면한다면 이싸움에서는 이길 재간이 없다.

경제실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같이 주시하고 시장을 감시해야 한다.

추석선물 안주고 안받기를 그렇게 떠들어대는데도 TV를 비롯한 매스컴에서는 여전히 「추석선물용 상품선전」을 하고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그런광고를 비난하고 그회사제품을 사지않을 뿐만아니라 자기가 사지않는이유를 기업측에 편지로 알릴수있는 정도까지극성을 부려야 한다. 또한 어린이의 호기심을 미끼로해서 물건을 팔아먹는 행위는 인질범의 행위와 하나도 다를바가 없으므로 그러한 기업역시 매도할줄도 알아야 하겠다.

기업은 이제 소비자를 상품을 팔아먹는 시장으로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소비자의요구를 하청받아 그요구에 맞는 적절한 상품생산을 대행한다는 자세로 기업을 운영하고 상품을 안내해야될 것이다.

체면때문에 분수넘치는 짓 해서야
간소한 차례상」에 男性이 앞장을

이번 추석에만은 소비자들이 바보놀음을 하지않았으면한다. 체면때문에 분수에 넘치는, 또 필요성이 덜한일을하던것을과감하게버려야겠다. 시장바구니의 무게가 가벼우면 애정을 더 보태어 무겁게도 할 수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단한번만이라도 좋으니 이번 추석에만은 남성들이 앞장서서 새 경제안경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남성들이 해줄일은 주부들이 차례상을 간소하게 차리도록 집에서 강요해주는일이다. 제상이 잔뜩 넘치지못하면 조상에 대해 소홀하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의 의식은 질과양의 비례를 존중하는 잘못된 생각이며 파거해야될 고정관념이다.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때문에 살아있는사람이 쓸데없이 고통을 당한다면 조상도 안타까와할 일이다.

남성들의 간단한 협조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또한 기업에 휘둘리지 않는 현명한 소비자의 세력을 인식시키게하는 출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남성이 앞장서서 물가에 대처함으로써 이번 추석에는 한판 승부가 멋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싶다.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㊴

日帝의 敗亡

獨立투사·有志등 沒殺說에 전전긍긍
逃避권유에도 집에 머믈다 그날맞아

1941년말, 초겨울 어느날이었다. 팔다리가 쑤시고 아파 방안에 드러누워 있는데 일본이 미국에 선전포고했다는 방송이 나왔다. 난 그 뉴스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 「解放의 날이 가까와 오는구나」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巨人 미국에대한 일본의 선전포고는 결국 일본의 敗亡을 의미하며 일본의 패망은 곧 우리의 해방을 의미하는것이 아니겠는가. 오랜 미국생활을 통해 난 미국의 무서운 잠재력을 잘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것이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

방송을 듣고난뒤 몸의 통증이 씻은듯 가셨다. 난 밖으로 뛰쳐나갔다. 누굴 붙들고 얘기를 해야만 속이 풀릴것 같았다.

日帝末 감시의 그물속에서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 이곳 저곳에서 모여 은밀한 대화를 많이 나눴다. YMCA식당, 百合苑, 세브란스병원식당등이 우리가 자주 갔던 곳이다.

나는 그중에서도 그럴듯한 양식집인 百合苑엘 자주갔다. 百合苑은 YMCA 건너편의 鍾路1街 貫鐵洞골목에 있던 洋食집이었는데 처음엔 金東成씨가 하다가 나중엔 夢陽 呂運亨의 李氏인 呂運弘이 인수해서 운영했다.

百合苑은 日人들의 눈총이 직접 미치질않아서 좋았다. 혹시나 낯선 이가 있는듯 하면 그저 밥이나 먹고 잡담이나 하는척 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며 이른바 정보교환을 했다. 일본의 對美선전포고로 日帝의 終末이 멀지않았고 上海임시정부에서는 연합군과의 공동전선을 모색, 최후의 抗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등의 얘기가 오르내렸다.

百合苑에드나들던 인물중에는 李鳴鶴같은 奇人도 있었다. 나는 錦陵尉 朴泳孝선생의 소개로 그를 알았다. 易學의 대가인 李鳴鶴씨는 당시 中·日전쟁과 2차大戰을 점치면서 해방의 해에는 蔣介石中國총통이 연합국의 힘으로 勝戰할 것이고 미국이 결국 세계를 영도할 運勢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雪山 張德秀와 夢陽 呂運亨이 암살될 운명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를 들은 夢陽이 노발대발, 다시 그를 상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또 음력 7월에 해방이 있을 것이고 李承晩박사가 還國해 建國을 실현할 것이라고 하는 등 기막힌 예언을 해댔다.

나는 百合苑시절 평생의 큰 실수를 저질렀다. 鑛山을한다고 손을댔다가 破産을하고만 것이다.

나는 美洲에서의 귀국목적이 독립자금염출에 있었던만큼 자금을마련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있었다. 그러던 차에 咸鏡南道의 실업계인물인 李太完씨가 찾아와 유망한 광산이 있으니 10만원정도 투자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손댄게 平北 厚昌에 있는 重興광산이었다. 광산은 李씨와 나, 夢陽이 인수해 개발하기로 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당시 세브란스醫專교수로 있던 從兄 尹致旺박사에게 원조를 청했다. 致旺형님은 우선 2만원짜리 약속手形을 써주었다.

우리는 YMCA뒷골목에 있던 萬和여관에서 아침저녁으로만나 사업을 의논했다. 그러나 뒷돈을 더 이상 대지 못하자 不渡가 나고 큰 빚을 지게됐다. 난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까지 다 털어넣었으나 허사였다. 결국 뒤를 감당못해 巨金 1백50만원의 빚을 지고 破産했다. 파산의 후유증은 해방때까지 날 계속 괴롭혔다.

해방전 어느 여름날, 경무국에 다니는 한사람이 나에게 은밀히 하는 말이 『오는 10월17일 밤1시를기해 安養근교의 산록에서 독립운동관련자등 조선인유지들을 전부 사형집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극비리에 어디로 피신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난 피신할생각으로 룩색에 찹쌀가루, 버선, 솜 양말등을 넣고는 밤12시가지나 忘憂里고개까지 갔다. 그러나 어디로 갈것인지 막막하기만 했다. 가다 잡히면 더 큰 고통이 올것같아 발길을 돌렸다.

『왜 다시 돌아왔느냐』는 아내의 말에 『人命은 在天』이라면서 『죽어도 집에서 죽겠다』고 했다.

그뒤에 다시 들은 얘기지만 日帝는 後患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인사를없애려 했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탄알을 아껴 목을 매 죽일계획을 세웠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차에 감격의 해방을 맞았다.

해방전날 安國洞집에서 난 「내일 중대방송이있다」는 12시예고방송을 듣고 『아, 드디어 놈들이 항복방송을 하는구나』하는 생각에 한숨 못자고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참이었다.

◇日帝가 美國에대해 宣戰포고를했을때 「우리는해방이될것」이라고 생각했다。사진은 8·15해방直前 서울新世界백화점(現在)거리모습。

"서울 싫어요"
國校少女 自殺

국민학교6학년여자어린이가 『나는어린이가 되기싫다. 시골에서 살고싶다』는 유서를 남겨놓고 극약을 먹고 자살했다.

서울東大門區面牧7洞61의16 李姓烈씨(54·식당주인)의 2녀 順子양(12·가명·S국교6년)이 지난 2일밤 8시30분께 자기방에서 근처 약국에서 산 극약을 먹고 신음중인것을 언니 淑子양(14·가명)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3일하오1시께 숨졌다.

언니 淑子양에 따르면 2일하오 7시30분께 집에 혼자있던 順子양이 『빨리 집으로 오라』고 아버지가 경영하는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 집에 돌아와보니 順子양이 울면서 엄마·아빠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해 다시 식당에 갔다가 돌아오니 부엌에서 극약을 먹고 신음하고 있었다는 것.

가족들에 의하면 順子양은 5개월전부터 주산학원을 다녔는데 하오6시30분께 귀가할때 골목길에 있는 불량배들을 무서워해 8월하순에는 주산학원에 나가지 않았다.

「한국의 탈」강연회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의 탈」을 주제로 한 제5회 학술강연회를 5일하오2시 민속박물관(景福宮내) 시청각실에서 갖는다. 내용및 발표자는 ▲한국탈의 제작기법 金琪洙(한국가면연구회상임이사) ▲한국탈춤의 춤사위 鄭昞浩(中大교수)▲한국탈의 조형미 柳敏榮(檀大교수)

「현대의向方」강좌

사단법인 세계평화 교수협의회(회장 李恒寧)는 全人的인간형성을위해 「교양대학강좌」를 설치키로 하고 1차로 7일부터 30일까지 매주 月·水曜日(하오7시~9시) 「현대문명의 향방」이란 주제로 교양강좌를실시키로했다. 수강장소는 鍾根堂빌딩12층(☎352-1~2)

全·眞·常 월요강좌

가톨릭여학생관은 이달들어 첫 월요강좌를 7일하오 7시 全·眞·常교육관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외국어대학 呂東贊교수. 주제는 「항상 기쁨의 의미」.

입센의「人形의 집」 女性해방 아니다

申定玉교수 歪曲의 背景분석

實存的관점의 「人間해방」일뿐
西歐서도 한때오해…作家가解明까지
東洋선 봉건사상批判편승 더욱 變色

여성해방운동이라는 말이 나올때마다 감초처럼 등장하는 고전이 「인형의 집」이다.

노르웨이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헨리크·입센(1828~1906)이 쓴 이 희곡은 흡사 공산주의자들이 「資本論」을 떠받들듯 여권운동자들의 교본같은 것이 돼버렸다.

특히 인간적인 해방을 위해 집을 뛰쳐나간 여주인공 노라는 남성의 횡포에 저항하는 여성의 표본처럼 돼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형의 집」이 「여성해방」이라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쓰여진작품이 아니라 「인간해방」이라는 실존적관점에서 쓰여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유독 이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받아 들여진것은 무엇때문일까. 영문학자申定玉교수(明知大)는 최근 「明大論文集」제12집에서 「新劇初期에 있어서의 리얼리즘劇의 移植」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입센의예술이 왜곡전달되는 배경을 분석하고있다.

「인형의 집」은 원래 西歐에서도 한동안 여성해방과 관련된 작품으로 오해를 받아 입센이 女權聯盟에서 해명을 하는 촌극을 일으키기도 했다. 입센은 그자리에서 자신은 여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자기는 「인권」이 관심사라고 실토했다. 물론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것도 바람직하나 자기의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실상을 비춰주는것이라고.

따라서 노라가 집을뛰쳐나간것도 남성에대한 저항에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의 중류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자신이 한낱 인형에 불과한 존재라는것을 느끼고 자신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교육하겠다는 자각에서 집을 나간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있다.

그러나 이작품은 동양에 들어오자 당시의 동양적인 사회여건때문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입센의 작품이 일본에서 알려지기시작한것은 1892년부터였으며 1906년 입센이 사망할 무렵에는 「입센의 계절」이라할만큼 그의 연극이 붐을 이루게된다.

이중 「인형의 집」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에대한 차별이 심한 당시의 일본사회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지식인들간에는 노라의 가출을두고 격렬한 찬·반논의가 벌어졌었다.

당시만해도 한국의 해외문화에대한 접근은 철저히 일본을 경유하게되어있어 「인형의 집」이 한국에 들어올때는 완전히 여성해방운동의 복음서같이 변색된 상태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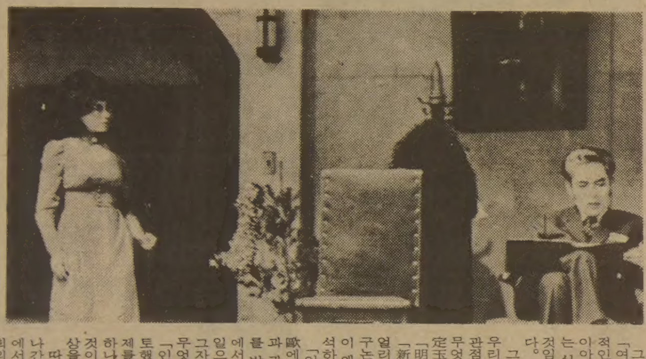
그런데 입센의 작품은 한국에 들어오자 한국특유의 시대상때문에 그사회학적인 측면이 한층 더 강조된다.

한국에서 입센이 처음소개된것은 1920년 東京유학생 崔承萬의 「文藝에對한雜感」이라는글이었으며 연극공연은 1925년 9월 朝鮮俳優學校에서 시연한 「人形의집」이 효시였으므로 일본과는 대체로 30년가까운 시차가있었다.

당시는 1차대전을 전후하여 민주주의사상이 활기를 띤 데다가 비록 좌절되었지만 3·1운동은 민중들간에 근대적인 자각을불러 일으켰다. 이로인한 자유와 평등사상, 특히 개인의 권리를 묵살해 오던 봉건적인 유교사상에대한 비판은 필연적으로 남녀평등과 자유연애및 전통적인정조관념에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입센을 처음으로 소개한 崔承萬 자신이 여성해방문제를 주장하는 선구적 언론인으로서 평소 『여자의 해방이란 다만 여자를, 위해서만이아니라 사회전체의 향상발전을위하여 여자에게 동일한 자유, 평등의 권리를 보존토록 되어야할 것이 아닌가』하고 주장했었다.

그후에도 입센의 예술세계에 관해서는 金漢奎, 玄哲, 柳葉, 鄭寅燮등에의해 계속 소개됐지만 근대희곡의 비조인 입센을 예술적인 각도에서 깊이있게 파헤친 전문적인 입센理論家는 나오지않았다고 申교수는 결론짓고있다. 【梁平기자】



◇1920년대이후 국내에서도 자주공연되어온 「인형의집」무대。「노라」는 과연 여성해방운동의 상징인가?

流星의 賦 <176>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山空花自紅 ㉖

『불쌍한 아이다』

하고 이영이 한숨을 지은 까닭을 계남은 알았다.

(벙어리가 돼 놓으니 시집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구나)

그러나 계남의 이 짐작은 어긋났다. 벙어리라고 해서 시집을 못가란 법은 없다. 이숙랑(李淑浪)이 시집을 못가는 이유는, 결혼할 경우엔 피차의 근본(根本)을 밝혀야 하는데 이숙랑은 그 근본을 밝힐 수도 없었고, 근본을 밝혀서도 안되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이영이 평생을 그늘에서만 살아야 하는 사정이 곧 숙랑의 사정이기도 했다.

말을 못하는 사람과 같이앉아 혼자 말을 할수도 없는터라 계남은 계속 술을마시고 안주를 먹었다. 밤은 깊어만 가는데, 말 없이 술을마시고 있으려니 숙랑을 안타깝게 여기는 기분과는 달리 답답한 심정이 아닐수 없었다.

한되는 실히 들것같은 병 세개를 마시고야 계남이 상을 물리라고 했다. 상은 물려갔는데 숙랑만 옆에 남았다. 계남이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일어서서 나가야하나, 이대로 남아있어야 하나)

그리고 있을때 하녀의 말이 있었다.

『침구는 안방에 펴놓았읍니다』

『침구는 왜요?』

하고 계남이 깜짝 놀라는 소릴 했다.

『나으리의 분부시옵니다』

『나으리의 분부?』

『예』

계남은 아까 분명히 대답을 보류했다. 이 영도 그것을 양해하고 계남의 어머니께서 승낙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하녀와 숙랑을 상대로 그런 말을 할 순 없었다. 그 대신

『내 날을 바꾸어 올 터이니 오늘은 이만 돌아 가야 하겠다』

고 했다.

『안되오이다. 도련님. 이 집에선 밤엔 대문을 열지 못하게 되어 있사옵니다』

하녀의 말이었다.

『그것도 나으리의 분부인가?』

『나으리의 분부이기에 앞서 밤엔 나가지도 들지도 못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지켜 온 법도이옵니다』

그렇다면 담장이라도 넘어서 가지, 하는 말이 입밖으로 나올뻔 했지만 계남이 참았다. 아닌게 아니라 이숙랑을 두고 떠나기엔 이숙랑이 너무나 아름다왔다. 안타까왔다.

계남이 하녀와 숙랑의 뒤를 따라 사랑에서 나와선 뒤뜰로 돌아갔다. 뒤뜰엔 그윽한 꽃 향기가 흐르고 있었고, 하늘엔 총총한 별들이 있었다.

안집 축담에서 계남은 안방을 바깥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방문에는 주렴이 드리워져 있었고 촛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계남은 측간을 들러 방으로 들어갔다.

폭사한 요 위에 멍석이 깔렸고, 그 한 모퉁이에 반쯤 펴놓은 질 이불이 있었는데, 그 질 이불에 수놓인 무궁화가 계남의 눈을 쏘았다. 황홀감이 감돌았다. 한쪽으론 보료가 있었다. 그 보료위에 멍청히 앉아 있노라니까 이숙랑이 문갑 위의 지필묵을 내려 놓고 가느다란 붓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苦相身爲女(고상신위녀)
卑陋難再陳(비루난재진)」

(여자는 태어났으니 고생스런 상이 아닐 수 없사이다. 이 비루함을 다시 어떻게 말하리까)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고포특별우대… 이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TIE CITY
Square One
275-2187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 〈MUTUAL LIFE〉 Ⓜ

금번 Mutual Life에서 일하게 된 박시조입니다

MUTUAL LIFE보험회사는 카나다에서 individual life부분으로는 가장 많은 보험가입자를 흡수한상호보험회사로서 110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가진 카나다자본의 굴지의 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MUTUAL LIFE는 바로 보험가입자 여러분의 회사입니다 보험가입자 모두 같은 비율로 이익을 분배받으며 상호보험만이 갖는 특수한 장점들은 교민여러분의 미래의 설계에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박 시 조 올림

취급보험 :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은퇴보험
● 구 룹 보 험
● BUSINESS LIFE보험
● R. R. S. P. (세금공제 은퇴저축)
● INCOME EVERAGING ANNUITY

☎ : 494-3800(B)
481-8835(R)

251 CONSMER RD. (세퍼드×빅토리아 팍)

啓聖·洪州·景城·通津綜·東北高 16強 대열에 進入

中高校축구

◇2회전 洪州高와 盈德高의 접전。盈德수비선수 ㉧가 필사적으로 볼을 걷어내고있다。

태풍으로 이틀간 중단되었다가 4일 속행된 제36회 청룡기쟁탈 전국중고 축구대회 5일째 2회전경기가 孝昌구장과 제일은행구장서 속행, 忠南洪州高, 景城高, 金浦通津綜高, 東北高가 16강에 올랐다。이날 洪州高는 후반28분 金鍾圭의 결승골로 慶北盈德綜高를 1-0으로 물리쳤고 通津綜高는 全北高敞高를 후반12분 崔容赫의 슛으로 1-0으로 꺾고 각각 16강에 올랐다。또한 景城高는 栗谷綜高의 후반 맹추격을 2-1로 따돌렸고 東北高는 大邱商誠機工을 3-1로 대파하고 16강이 겨루는 3회전에 나갔다。

3회전서 洪州高는 崇實高를 승부차기로 꺾은 龍文高와, 通津綜은 馬山工高, 東北은 往文津水高, 景城은 東大附高와 각각 대결한다。

한편 중등부 첫경기서 춘추계연맹전 우승팀 富平東中이 水原北中을 4-0으로 완파하고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제5일전적

▲중등부1회전

동부중평 4 (3-0 1-0) 0 낙수중원

▲고등부2회전

홍주충남 1 (1-0 0-0) 0 영덕경북

서울경성 2 (0-1 2-0) 1 율곡경기

동북고 3 (2-1 1-0) 1 대구상선기공

경기통진종 1 (1-0 0-0) 0 고창전북

대구계선 1 (1-0 0-1) 1 배재고 〈승부차기3-1〉

강릉상고 1 (1-0 0-1) 1 전북체고 〈승부차기 3-0〉

세계柔道 L헤비級서 河亨柱 銅획득

【마스트리히트(네덜란드) 3日AP＝聯】한국의 河亨柱는 3일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개최된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라이트헤비급(95kg이하)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河선수(東亞大)는 이날 몽고의 S·쿠를바타르와 스위스의 G·크라헨뷜을 꺾은 다음 76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西獨의 G·노이로이터를 눕혀 기세를 올렸으나 소련의 강호 T·쿠부리에게 한판을 져 동메달에 그치고 말았다。

한편 헤비급(95kg이상)에 출전한 趙容徹은 올림픽헤비급챔피언인 프랑스의 강호 안젤로·파리시를 비롯하여 이집트의 사·라스완등을 격파했으나 일본의 야마시따·야스히로와 핀란드의 주하·살로넨에게 연패하여 동외로 밀려났다。

이날 소련은 금1, 은1개를, 일본이 금1개를 따냈으며 한국은 동메달1개로 체코·폴란드·프랑스와 함께 공동4위를 마크하고 있다。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헤비급에 출전한 한국의 趙容徹이 이집트의 모하메드·아스완을 넘어뜨리고있다。【마스트리히트(네덜란드) 3日AP＝聯】

日、印에辛勝 3-2 메杯축구 2連勝…A組선두

【쿠알라룸푸르3日AP＝聯】한국은 3일 메르데카축구대회 A조예선 2차전에서 印度를 3-2로 물리치고 2연승을 기록, A조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날 B조예선경기에서는 브라질의 사웅파울루 선발팀이 이라크와 접전끝에 2-1로 이겨 1승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은 4일 싱가포르와 첫경기를 갖는다。

亞洲漕艇 10월開幕

제1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가 한국을 비롯한 中共·日本등 9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10월23일부터 28일까지 나고야에서 개최된다。

이번대회에는 한국·中共·日本·印度·파키스탄·싱가포르·필리핀·홍콩·인도네시아등 9개국이 참가하나 北韓은 출전신청을 하지않아 불참할것으로 예상된다。

또 10월23일에는 아시아연맹결성을 위한 회의가 열린다。

매켄로에 罰金7,250弗

프로테니스協 亂暴행위따져

【뉴욕3日AP＝聯】국제남자프로테니스평의회는 금년도 윔블던대회 패자로 美國의 테니스·스타 존·매켄로(22)에게 2개월전 열렸던 이대회에서 난폭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총7천2백5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결정했다。

프로 테니스 평의회는 윔블던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벌금조치를 취했으나 매켄로의 국제대회참가자격은 정지시키지 않기로 했다。

"世界웰터級 통합전 承認" WBC會長 밝혀

3일 내한한 WBC(세계권투평의회) 호세·술레이만(50·멕시코)회장은 오는 17일상오(한국시간) 美國라스베이가스서열리는 WBC웰터급챔피언 슈가·레이·레너드(미국)와 WBA동급챔피언 토머스·헌스(미국)간의 통합타이틀전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WBC는 당초 레너드가 헌스와 대결할경우 타이틀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었다。이로써 미들급챔피언 마빈·해글러(미국)에 이어서 레너드-헌스전의 승자가 두번째로 WBA·WBC 통합챔피언이 된다。

레슬링選手團 12명유고向發

오는11일부터 나흘간 유고에서 개최되는 81년도 세계레슬링 자유형선수권대회에 출전할 한국선수단12명(임원6·선수6)이 4일밤 KAL편으로 장도에 올랐다。

◇한국선수단

▲단장 梁勇浩▲감독＝安昌文▲코치＝金益鍾▲주무＝鄭奎道▲회의대표＝金義信▲국제심판＝金榮吉▲선수＝孫甲道 柳寅卓 金義坤 安勝文 李正根 高鎭源

헤비級등 3체급 新設

챔피언 義務방어 規定

OPBF總會 서울서 9개會員國 참가 懸案토의

동양태평양 권투연맹(OPBF)금년도 총회가 4일 신라호텔서 9개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가운데 개막, OPBF의 현안문제를 토의했다。

이날 총회는 오는 10월부터 헤비급 크루저급 라이트헤비급등 3개체급을 신설하자는 濠洲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로써 OPBF의 공인체급은 현재의 12체급에서 15개체급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OPBF 각체급 챔피언들이 강한 도전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위해 각급 챔피언은 타이틀을 획득한후 6개월이내에 상위랭커와 의무방어전을 갖도록 규정했다。총회는 5일 폐막된다。

三湖住宅 우승 職場人야구

회장기쟁탈 직장인 야구대회 최종일 결승전이 4일상오 서울 운동장서 열려 三湖住宅이 10개의 안타를 기록하며 國際商事를 7-3으로 대파하고 대회2연패를 차지했다。三湖의 1루수 李信雄은 최우수선수상을, 투수 李炫政은 우수투수상을받았다。

◇결승전

삼호주택	000	201	040	—7
국제상사	200	001	000	—3

成大 농구코치 韓昌道씨 就任

成均館大 농구팀 코치 玉晃씨의 후임으로 韓昌道씨가 취임했다。

韓昌道코치는 60년대초 高麗大에서 농구를한후 美國에 이민했다가 79년 귀국했다。

섹스敎 물의 선교사 出國

최근 세칭 섹스교를 포교했다가 물의를 일으켰던 모대학강사로 미국인 그렉·C·어번트씨(29)부부와 존슨씨(28)부부등 미국인 부부 2쌍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권고 조치에 따라 4일하오 2시30분 NWA편으로 출국했다。

올림픽 金메달에 카퍼레이드 行事

體育會 환영 基準마련

대한체육회는 국제대회 참가선수단의 환영식및 카퍼레이드 환영행사 의전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안에 따르면 카퍼레이드는▲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이상 또는 은메달3개이상▲아시안게임 종합4위이상 세계선수권대회 종합2위이상 및 아시아선수권대회 종합우승때 실시하며 축하 또 환영식은 올림픽과 유니버시아드대회 은메달2개이상▲아시안게임 종합3위이상이나 동메달3개이상, 은메달5개이상▲각종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2개이상▲아시아선수권대회 종합우승의 경우에만 실시키로 했다。

이상은 올림픽에서 동메달이상이나 다른 대회은메달이상에 한하도록 했다。이밖에 표창상신은 각대회입상선수와 경기임원, 단장에게 하며 비올림픽 종목이나 주니어대표는 별도 고려하기로 했다。

金貞洙(7회) 金成琯(9회) 홈런

롯데、第一銀에 4대1 승리

◇홈런打者 홈인 롯데와 第一銀대전 9회초 2사후 롯데의6번 金成琯이 2점호머를 날리고 홈인하고있다。

實業야구 後期리그 어제再開

韓電도 貧打의 農協눌러

실업야구 후기 1차리그가 월드게임、대륙간컵 출전및 국내대회 스케줄에밀려 중단된지 66일만에 4일 서울운동장서 재개되었다。중반에 접어든 대회9일째경기서 롯데는7회초 金貞洙의 우월 결승호머와 9회초 金成琯의 승리를 굳히는 좌월2점호머로 第一銀行을 4-1로 제압하고 3승1무1패를기록、단독 2위에나섰다。

대륙간컵에서 큰 활약을보였던 崔東原은 7회말 1사 2、3루의 위기에구원등판、위력적인 강속구로 第一銀行공격을 1안타로 막아 승리를 지켰다。韓電은 1회말 權百行의 3루타로 선제점을올리며 農協에 5-3으로승리、3승3패를기록했다。

10개팀 리그의 45게임중23게임을 치른 현재 韓一銀行이 3승1패로 선두를 달리고 롯데(3승1무1패) 商銀(2승1무1패)이 그뒤를 좇고 있다。

롯데-第一銀전은홈런3방으로 간단히 승부가 결정되었다。第一銀은 1회말 2사후 3번 노장 金宇烈이 롯데선발 姜晩植으로부터 선제솔로호머를빼앗았다。그러나롯데는 3회초 崔正基 金仁植의 잇단 2루타로 동점을얻고 7회초 선두 3번 金貞洙가 산발 4안타로 역투하던 第一의 왼손투수 鮮于大泳을 공략、우월 결승 홈런을 때렸으며 9회초에는 2사후 6번 金成琯이 좌월 2점 홈런을 날렸다。

◇제9일 전적

롯데(3승1무1패)	001	000	102	—4
제일은행(2승1무3패)	100	000	000	—1

▲홈런＝金貞洙(7회초) 金成琯(9회초·2점·이상롯데) 金宇烈(1회말·제일)

농협(2승3패)	010	000	020	—3
한전(3승3패)	200	101	01×	—5

仁荷·中央1승

統一旗대학야구 開幕

【大邱＝聯】비로순연되었던 제4회 통일기쟁탈 전국대학 야구대회가 4일 大邱시민운동장에서 4연패를 노리는 延世大등 14개팀이 출전、토너먼트로 개막되었다。

대회첫날 1회전 첫경기에서 仁荷大는 崔相勳·金相基의 계투로 仁川體大의 타봉을 산발 1안타로 처리하고 장단 12안타를퍼부어 仁川體大를 6-0으로 물리쳤다。

中央大는 9회까지 완투한 에이스金龍洙가호투、嶺南大의 타봉을 산발5안타로막고 장단11안타와 4번許云의 5타수 4안타 3타점등의 수훈으로 嶺南大를 4-0으로 따돌리고 2회전에진출했다。

◇첫날전적

▲1회전

인하대	000	030	021	—6
인천체대	000	000	000	—0
중앙대	111	010	000	—4
영남대	000	000	000	—0

서울野球場 몸살

밀렸던 競技겹쳐 어제 4게임치러

서울운동장야구장이 태풍으로 밀렸던 경기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태풍 애그니스가 몰려간 4일 서울운동장 야구장에는 태풍이 몰아온비로 중단되었던 韓日고교야구대회 1차전、실업야구 후기1차리그、직장인야구대회결승등 명칭이 다른 3개대회가 상오9시반부터 밤9시까지 11시간이상이나 계속되었다。밤경기로 벌어진 낙제경기를 비롯 고교、실업、직장인의 4게임이 진행되어 유례없이 바빴던 이날 야구장의 입장요금은 일반1천원、학생 5백원으로 평소와같았으나 동원관중은 1만명 미만。

在美李相哲태권사범에듣는다

美國 울들어 飛躍期에

汎美대회서 優勝차지

美올림픽委도 기뻐에

『지난1월 美國 휴스턴서 열린 팬암태권도대회에서 만년2위팀이던 美國이 처음 우승을 차지했읍니다。汎美洲16개국 팀이 출전했던 이대회서 美國이 金메달6개로 멕시코(金4)를 누르자 美國올림픽 위원회(USOC)가 그렇게 좋아할수 없더군요。올림픽후보종목에 채택된 태권도에서 美國의 실력이 급상승하고있다는것을 느꼈기 때문이지요』새마을교육을 받기위해 일시 귀국한 美國태권도대표팀 코치 李相哲씨(36)의 말이다。지난75년 渡美、79년부터 美國대표선수들을 지도해온 李코치는『지난 70년대가 태권도의 양적 팽창시기였다면 80년대부터는 질적 발전기로 변화하고 있다』고 그간의 美國태권도계를 분석했다。

◇멕시코에 눌려서 만년 2위팀이던 美팀을 우승시킨 李相哲코치。

현재 美國대표팀에는 핀급 밴텀 라이트미들급등 4개 체급에서 한국계 선수가 포함돼있으나 美國인들의 수준이 날로 향상、점차 한국계 선수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지난번 샌타클래라서 벌어진 제1회 월드게임 태권도 부문서 美國은 핀 라이트 라이트미들급등 3개 체급서 銀메달을 획득、한국 캐나다에 이어 3위를 차지했었다。

오는 12월5일부터 벌어질 제5회 세계선수권(장소 미정)에는 캐나다를 앞지르는것을 단기목표로 정하고 10명의 대표선수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최근의 각종 국제대회서 좋은 성적을 올리자 美國체육계는 태국도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있으며 대표선수들도 어느때보다 많은 자신감을 갖고 李코치의 말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

『6년만에 처음 고국의 모습을 보고 참 많은 것을 느꼈읍니다。우리의 현실이 다시 피부에 와 닿았읍니다。국기태권도의 기술은 물론이고 그 정신까지 훌륭히 전달하는게 나의 의무라고절감했읍니다』며 李코치는 이번 고국방문이 그간 다소 풀렸던 정신을 재무장시키는 계기가 왔다고 밝혔다。지난 70년 태권도부문서 최우수체육상을 받기도 했던 李코치는 趙順好씨(30)와 3형제를 키우고 있다。【옥】

미국 이민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 이민쿼터제
● 노동허가법
● 학생비자발급
● 그외의 문제등, 또한 지금 어떠한 종류등 이민수속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신분

위와 같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화나 편지를 주시면 뉴욕에서 다년간 이민법에 종사하신 미국인 변호사 ROGER C. ALGASE(알게이즈 씨)께서 좋다 안기쉽고, 자세히 성의껏 답해 드립니다.
사무실엔 항상 한국인 보조원이 계시어 불편없이 도와 드립니다.

연락번호 : (212) 762-5100
연락주소 : 136-31 ROOSEVELT AVE. Suite #2 FLUSHING, N. Y. 11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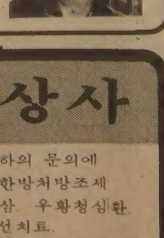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아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 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일요일 : 오후3시~7시
706 BLOOR ST·W
☎ : 534-2003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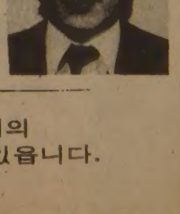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국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 2 MEADOWGLEN PLACE # 202A, SCARB. ONT M1G 2V6
☎ : (B)438-6440 (R)439-1330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FULL TIME가게헬퍼구함
남자분에 한함
☎ : 762-1572, 769-9854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 368-2819 미스터 원

도나스 샵에서 FULL TIME 헬퍼구함
밤11시~아침7시
☎ : 782-7409(오전중)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 구함.
오후3시~밤 11시까지 (주6일) ☎ : 921-0624.

주말에 맥스밀크에서 일하실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KINGSTON & MIDLAND
☎ : 266-3644

"급 구"
●스토아매니저구함. 약간의 보증금요함
●풀타임 캐쉬어, 풀타임 헬퍼구함
☎ : 742-0800, 241-4755
미스타 차

야채가게에서 파타임으로 일하실 분 구함
자세한 것은 전화문의 바람
☎ : 964-3354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WEST근처
☎ : 767-0762 미스타 김

주방헬퍼2명, 웨이터1명 웨이트레스 1명 구함
☎ : 536-0290
한 국 관

치과에서 일할 RECEPTIONIST구함
영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함.
☎ : 535-2798, 233-9454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 구함.
오후3시~밤 11시까지 (주6일) ☎ : 921-0624.

주말스토아 헬퍼구함
ALBION RD.
☎ : 745-6330

베이비 시터 구함 :
입주자 우대함
☎763-7450 미세스. 김

사무실 청소할 분 :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 298-3383 마이크

"급 구"
① 윤전기및 인쇄용카메라 기술자
② 윤전기및 인쇄카메라 기술 배우실분
③ 경리사원
(영어 · 타자 가능자)
☎ : 533-2361. MRS. LEE

미싱자수 기술자 구함 :
자격2년이상
☎ : 690-3434 미스타 유 (오후6시~9시)

매매및 양도

건물및 비즈네스 매매,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6500달러 이상
☎ : 535-7200 미스타 김

급 매
타사업 관계로 급히 매도코자 함. 관심있는 분의
직접 내방바람.
357 COXWELL AVE. TOR. ONT.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500달러
고등학교앞에 있음
☎ : 533-0334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 535-2804 미세스 김

매 매
FRUIT & FLOWER가게 : 3개월전 OPEN
전부 새장비. 주매상 4000 4500 권리금 3만달러
917 KINGSTON RD.
☎ : 691-6768

①버라이어티 · 스토아(주매상 $5,500)
②버라이어티 · 스토아(주매상 $3,500)
③버라이어티 · 스토아(주매상 $4,000)
황 순 일 ☎ : 481-3443, 745-5485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5200+로타리오
수입으로 렌트 충당함 호조건으로 양도코자 함
주소 : 3240 EGLINTON E.

DOWNTOWN MALL안에 있는 성업중인
FAST FOOD STORE임
주6일 영업. 주매상 $2000 아스킹 $33000
☎ : 536-0463

스토아 매매 :
건물달린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 1-387-3983 해밀톤 미스타 김

위치좋은 코너 그로서리 가게 매매
주매상 : $3000~$3500(특히 야채 적합함)
3888 BLOOR RT. W.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가정형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 $3천2백(좋은 Offer중)
☎ : 781-7305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 : 252-7982

스토아 급매 : 2층집 달린 가게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 : 766-9491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신용본위의 여러분의 여행사
712 BLOOR ST. W. 536-2155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상하수도 수리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크로스웨이(구 쿨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피 · 김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스타미용실 미세스 · 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헬렌미용실 미세스 ·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 · 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9시~9시(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나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악 기 점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 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에어콘 · 히팅 · 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 · 이인석)

에어콘 · 냉동 · 전기 · 히팅 ·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DALMER'S시설판매수리
에어콘 · 전기 · 개스 · 워킹쿨러, 후리저
☎ : (B) 746-3840, (R) 493-9945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김

부부화목 모범가정, 밝아지는 교포사회

한국일보사 광고부 제공

교민의 벗
한국일보 · 토론토
구독은…
533 2361

블론디
딘 · 영作
本社特約 · 連載漫畫

"아이구 맙소사! 옆집의 크럼블리네 식구들이 길을 건너오고 있어"
"빨리! 내가 문을 잠글께… 당신은 차양을 내리라구"
"쉬— 조용히해。그러면 우리가 집에 있는것 조차 모를거야"
"어… 그사람들 여기에 멈추지도않는데요" "그럼 어디로 가는걸까?"

싸다고 소문 난
가 나 안
카텐
2390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이달의 女性誌에서

혼수상태 5년째 柳長官부인 手記

「主婦生活」은 오는14일로 혼수상태 5년을 맞는 柳基春 前문교장관의 아내 奇정자여사의 안타까운 수기를 싣고있다.

76년9월14일 집무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서울대부속병원에서 1천5백일의 긴혼수상태에 빠져있는 남편을 간호하며 53㎏이던 체중이 38㎏으로 줄었다는 奇여사는 『그동안 큰 아들이 장가를 들었고 손자를 낳아 남편은 할아버지가 되었건만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말이 없다.

내년 4월16일은 그이의 회갑인데 제발 그때까지는 일어나실수 있도록 天主님께빌고있다. 성당에 갈때마다 나는 병원에서 못터뜨린 울음을 터뜨리곤 한다』고 쓰고 있다.

내남편은 어디에 吳樹美씨도 手記

영화배우 崔銀姬씨와 영화감독 申相玉씨의 行方不明소동속에 애타는날들을 살고있는 영화배우 吳樹美씨가 사건후 3년의 침묵을깨고 「엘레강스」에 手記를 썼다.

파리에서 「離別」이란 영화를 찍다가 申相玉감독과 사랑에빠져 그의아들을 낳았던 吳樹美씨는 영화계의 대선배인 崔銀姬씨를 밀어내고 申감독의 아내가 됨으로써 주변의 차디찬 비난속에 살아왔으며 두아이를낳고 겨우안정을 찾을때쯤 다시 무서운 사건을 겪어야만 했다.

吳씨는 이글에서 申相玉씨와의 사랑, 崔銀姬씨와의 갈등, 그리고 3년전의 사건등을 털어놓고 있다.

『78년2월 美國과의 合作영화를위해 김포를 떠난 남편과의 이별이 마지막 이별이 되었다. 崔銀姬씨 실종사건이 터지고 주변에서 우리를 의혹에찬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때 남편은 홍콩에서 전화를걸고 「8월말까지 귀국할테니 아무걱정말라」고 나를 안심시켰었다. 그 음성이 아직도 내귀에생생하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잊어가고있고 또 나에게도 잊으라고들 말한다. 살아있다면 3년동안 기별한장 없겠느냐고. 이젠 체념하라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그를 기다리고있다. 만일 죽었다면 내손으로 시신을 장례지내야만 나는 그의 죽음을 믿을수 있을것이다』라고 그는썼다.

歌手아닌 엄마로 沈守峰 은퇴예고

「사랑보다 더 슬픈情이라서…」는 제목으로 「그때 그사람」의 歌手 沈守峰은 「女苑」에 그의 지난날과 사랑에 대해 쓰고있다.

10.26의 現場에 있었던 쇼크를 이겨내지 못해 날로 쇠잔해가던 무렵 그는 어머니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인 韓基錫씨를 만났다고회상한다.

『네가 죽을지도모른다고 미리 예견한 사람이있었는데이제라도 찾아가보자』는 어머니에 이끌려 韓씨를 처음 만났던 그는 심령학에 호기심을 갖게되어 자주 韓씨를 찾아갔고 『나의 만성적인 염세주의가 서서히 변화하기시작했다』고 쓰고있다.

정신병원입원, 家出, 韓씨의 離婚, 韓씨와의 동거등우여곡절끝에 지난7월 아들을낳은 沈守峰은 『나는 이제가수 심수봉이 아니다. 이글은 나의 藝名을 아주 버리기위한 글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그의 가요계은퇴를 예고(?)하기도 한다.

모눈종이 위의 生 <193>

灰色노우트 ㉕

趙善作 禹慶熙畵

열두 시가 조금 지나 나는 J씨의 아파트에서 나왔다。그리고 곧장 충무로 방향으로 갔다。

J씨는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걸어왔고, 내가 그의 아파트를 떠나기 직전에도 또 한번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것은 내가 그의 희망대로 아파트를 지키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그런 J씨의 조바심이 내가 그의 아파트를 떠나는데 갈등을 느끼게 하지 않은것은 아니었다。그러나 내가 더 갈등을 느낀것은 J씨의 그런 조바심이 그를 충무로 쪽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다。「비밀로 해주세요」라고 내가 말했을때 보여주었던 그의 절망의 표정은 아무래도 그가 그런 입부터 저질러 버릴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게 했던 것이다。

간밤에 여자가 와서 자고 간 흔적 따위를 없애느라고 나는 세심한 배려를 했다。파출부가 와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일도 나는 원치 않았던 것이다。두개의 찻잔 중 하나는 깨끗이 닦아 본래의 자리에 간수해 두는 등, 그런 일로 어물어물 반시간쯤 보내고 나니까 열한 시가 넘었고,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오늘 하루는 쉬겠다고 전하고, 주방을 뒤져 토스트 몇조각을 구워 먹고, 그뒤처리도 깨끗이 하고, 얼굴을 조금 매만지고 나니까 열두시가 넘었던 것이다。

간밤에 내린 눈은 곳곳에서 녹아내렸고, 충무로의 골목들은 눈녹은 지저분한물로 더럽혀져 있었다。J씨의 아파트에서 나와나는 아파트근처의 공중전화에서 선남갑의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여관의 위치를 확인해 두었었다。남산여관은 골목 깊숙이 있었지만 나는 어렵지 않게 찾아냈다。

현관 어귀에서 잠시 얼씬거리다가 나는 닫혀진 현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사무실 방이 바로 현관 옆에 있었고, 작은 로비한쪽에 이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보였다。

사무실방의 창구로 얼굴을 내민 종업원 아줌마에게 그의 이름을 말하자 그녀는 그의 방 번호를말해 주었다。그리고 나서 그녀는 달갑잖은 표정으로 「주무시던데…」하고 덧붙였다。

『혼자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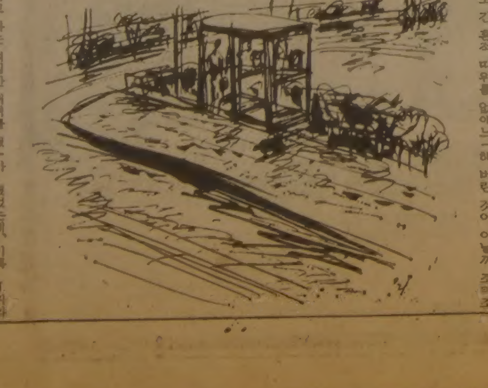
안도의 느낌으로 내가 다시 묻자, 그녀는 핀잔하듯 말했다。

『올라가 보시구려』

잠시 현관에서 머뭇거리던 나는 신발을 벗어 신장에 넣고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의 방은 이층의 복도 끝이었다。나는 또 그의 방도어 앞에서 머뭇거리고 서 있었다。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내 행동을 제약한 것이다。여관을 찾아나섰을때 나는 혹시 그가 그곳으로부터 또 철수해 버린 것이 아닐까 조마조마 했었는데, 비록 J씨와 함께였지만 간밤에 그의 단골술집에 나타난 내가 그의 숙소를 알아냈을것은 틀림없고, 그렇다면 그는 철수를 서둘렀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그런데 그는 태연하게도 그냥 있었고, 내가 그의 방문 앞에 당도하기까지 잠만 자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서둘러 여관으로 그를 찾아온 것은 혹시 J씨가 나타나 그에게 무슨 말을 지껄일지 모른다는 초조감 때문이었지만 아직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나는 내 터무니없었던 조바심이 조금 우습게 생각되기도 했다。그러나 나는 이미 그의 방문앞에 도달해 있었다。여관 현관 앞을 지키며 혹시 J씨가 달려오지 않나 감시하기만 하면 된다는 조금전까지의 생각은 자꾸만 퇴색했다。그리고 마침내는 또 그가 잠든방의 방문 앞에 도달했다는 흥분만이 내 가슴을 높이 고동치게 한 것이다。



샘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 환영
디자이너 MR. 김
606 BLOOR ST. W.
☎ : 535-4441

서울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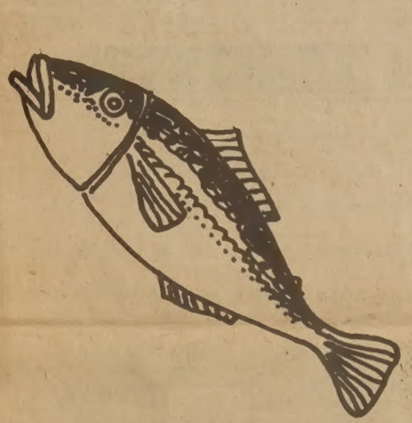
BIG SALE
BIG SALE

한국. 미국으로부터 대량 직수입
SPECIAL!! 세일기간 9월8일(수)부터

생선류

육류

		REG.	SPECIAL
● 불고기등심	Lb.	2.59	2.20(10피운드제한)
● 갈 비	Lb.	1.69	1.29(Box제한없음)
● 소꼬리	Lb.	1.35	1.09
● 참기름깡통(일본제품)		10.90	9.50
● 한국농장용 배 추 / 무 / 풋고추	농장가격으로그냥 서비스		
● 명간장	1 gal		6.90
● 양잠피	1 kg	2.25	1.80
● 삼양라면	1 박스(50개)당15봉지 Free		
● 삼양냉면	1 박스 5인용	24.00	19.00(1박스제한)
● 청수냉면	1박스 2인용	24.00	19.00(1박스제한)
● 오징어젓	Lb.		80¢ (특별가격)
● 한국고추가루	Lb.	3.50	2.90
● 어리굴젓	Lb.	4.90	2.90
● 각종선물용상품(gift)	−20% 디스카운트		
● 쌀	미국에서 도착즉시 추가세일할것임		
● 삿보로라면		13.90	11.50
● 산요보온밥톳			128.00(특별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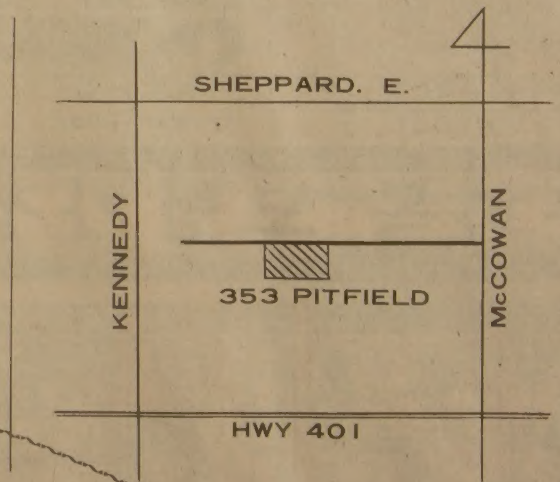


추천품목

야채류

주소 : 367 PITTIELD RD.

전화 : 291−8317



생활용품

서울식품

서 울 식 품

서울식품